

여수시, 무료 해양레저스포츠 체험프로그램 오늘부터 재개

9월 3일까지 윈드서핑·카약·카누·스킨스쿠버 등 10개 종목 전문 강사에게 안전·이론·장비 교육 받은 뒤 실습 들어가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여수시 해양레저스포츠 체험 프로그램이 7일 재개된다.

체험 종목은 당기요트·카약·카누·윈드서핑·스킨스쿠버·드래곤보트 등 10여개이며, 참여자는 전문 강사에게 안전·이론·장비 교육을 받은 뒤 실습에 들어간다.

프로그램은 7일부터 9월 3일까지 ▲웅천천수공원 '해양레저스쿨', '스킨스쿠버교실' ▲여

수세계박람회장 '해양레저스쿨', '방과 후 체험교실', 오는 14일부터 9월 3일까지 ▲소호요트마리나 '여수요트학교'에서 각각 운영된다.

강습비와 장비 대여료는 모두 무료이며, 참가자는 물 빠짐이 좋은 옷·아쿠아슈즈·모자·선크림·여벌옷 등을 준비하면 된다.

단, 편의시설(샤워장, 물품 보관함) 사용료는 유료이며, 여수시민은 신분증을 지참하면 할인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자는 체험일 기준 일주일 전부터 사전에 여수시OK통합예약(ok.yeosu.go.kr), 전화 등으로 예약할 수 있으며, 당일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각 프로그램 별 운영기간, 예약방법, 연령제한 등이 상이하므로 여수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방과 후 체험교실'에 한해 '학교 밖 청소년'에게 참가 자격을 우선 배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아름다운 여수의 해양을 만끽할 수 있는 이번 프로그램에 시민과 관광객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김현근기자



고흥군, 청정해역 건다시마 첫 위판, 본격 출하

고흥군은 본격적인 다시마 수확철을 맞아 6월 5일 금산면 오전 다시마위판장에서 건다시마 풍작기원제와 안전조업 기원을 위한 초매식이 열리며 본격적으로 위판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날 초매식에는 다시마를 생산하는 어민들이 참석했으며 해양여건 안정과 어민들의 안녕을 바라는 기원제를 올리고 건다시마 첫 경매를 개시했다. 첫 위판 물량은 약 37톤, 위판액은 2억 9천만원으로 위판 가격은 1kg당 평

균 8,000원으로 거래가 시작됐다. 고흥에서 생산된 다시마는 청정해역에서 자라 맛과 향이 탁월하며, 육상건조장에서 해풍으로 자연 건조해 주로 단백하고 감칠맛을 내는 국물용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날 초매식에 참석한 공영민 고흥군수는 "고흥산 다시마의 품질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어가 인력난 해소와 소득증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시, 1980~2000년대 장천동 결혼 문화 자료 수집

순천시는 오는 26일까지 1980년에서 2000년대 장천동 지역의 결혼문화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과거 터미널 주변 지역문화 자원(대형 예식장)에 대한 미디어자료, 인터뷰, 관련 물품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 수집을 통해 장천동 지역 문화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장천동만의 도시재생을 완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시는 1980년에서 2000년대 장천동 소재 진보예식장(장천동 15-3)을 비롯해 옛 순천의 결혼식장과 관련된 사진과 영상 자료를 모집하며, 해당 자료의 저작권을 보유한 개인 및 단체 등 누구든지 참여가 가능하다. 순천=김승호기자

광양시, 빈점포 활용 청년사업가(교육생) 신청하세요

18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사업가 창업교육생 10명 모집

광양시는 창업을 준비하고 있거나 창업에 관심이 있는 청년사업가를 지원하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창업 교육생을 재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최대 10명이며, 신청을 원하는 자는 이달 1일부터 12일까지 전라정책실 청년정책팀으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광양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39세 이하 예비창업자이다. ▲광양읍(전남도립미술관 ~ 광양역사문화관, 5일시장 일일) ▲중마동(사랑병원 ~ 광양청년꿈터 일일)을 창업 예정

지로 두는 경우 우대 선발하며, 거주 예정자는 최종 창업자로 선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광양시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단, 모집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자, 대학(원)생 및 휴학생, 세금 체납자, 유사 사업 중복참여자,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선정된 교육생을 대상으로 7월 중 전문 강사를 초빙해 예비창업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고객 응대 요령과 상권분석, 마케팅 전략 등 창업 기본교육을 총 18시간

에 걸쳐 진행한다.

교육 수료자 중 PT발표와 질의응답 등 평가를 통해 창업지원 대상자 최종 5명을 선정해 창업 초기에 필요한 리모델링과 임대료 등 창업지원금을 1인당 최고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전라정책실(061-797-199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유망한 사업 아이템을 가진 청년들이 이번 사업을 통해 경영컨설팅과 보조금 지원 등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광양=김현근기자

보성군, 어업인과 함께 율포솔밭해수욕장 해안가 대청소



보성군은 지난 2일 '제28회 바다의 날'을 기념해 회천면 율포솔밭해수욕장 인근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 및 '플라스틱 프리' 친환경 캠페인을 추진했다. 이날 행사에는 보성군 관내 어촌계 및 자율

어업공동체 등 어업인들과 보성군 해양수산과, 회천면 행정복지센터 직원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해안가 정화활동과 더불어 플로깅(조깅하며 쓰레기 수거), 바다낚시 후 쓰레기

되거져가기 등의 친환경 운동을 적극 알렸다.

바다의 날은 해양에 대한 인식 제고 및 바다 관련 산업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1996년 제정된 국가기념일로, 통일신라시대 장보고가 청해진을 설치한 5월을 기념해 5월 31일로 지정됐다.

군 관계자는 "바다는 보성의 미래이며 후손들에게 깨끗하게 물려줘야 하는 자원"이라며 "앞으로 군민 스스로가 바다를 지키고 가꾸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행사가 진행된 회천 율포솔밭해수욕장은 소나무 숲과 은빛 모래로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보성군 대표 여름 휴양지로 오는 7월 8일에 개장할 예정이다.

보성=김복순기자

어려울 때 힘이 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

누가 받나요?

- 방임, 유기, 학대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정폭력, 성폭력
- 수도, 가스 등의 공급 중단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구금시설수용, 실직, 휴·폐업
- 화재, 경매, 강제퇴거 주거지 상실

무엇을 받나요?

- 생계지원 : 월 126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6회
- 주거지원 : 월 64만원(4인 기준/월) 지원, 최대 12회
- 의료지원 : 300만원 이내 지원(퇴원전 신청)
- 기타지원 : 교육지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 맞춤형(생계) 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료지원(일부)만 가능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광산구 복지정책과 **062-960-8398, 8405**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 가까운 주소지의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상담·신청 가능합니다 ”

선지원 후조사 (소득·재산 확인) 사후조사 결과 기준초과시 지원금 환수 조치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365만원(4인 가구)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8,800만원 이하(대도시 기준)

고독사 예방을 위해 동행정부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방문상담을 추진 중입니다. 홀로 어렵게 사시는 분 또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주소지 동행정부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문의 바랍니다.